

불구 신앙이 불구 생활을 낳습니다. 어떻게 믿느냐는 어떻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자 참 생활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진설병이 나옵니다. 베평진, 베평설, 떡 병으로 진설병이란 하나님 앞에 진설되어 있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항상 있어야 하는 떡을 말하는데 여섯개씩 두 줄로 날마다 성전에 진설되어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진설병입니다 (레 24:5, 출 25:30). 가루가 된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나’라는 알맹이를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내 할 말 다하고, 나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가루가 되는 순간 알맹이는 부서져서 그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입니다. 가루가 되더라도 고운가루가 돼야지 자기방식과 자기생각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거친 가루가 됩니다.

거친 가루로는 진설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루가 되기까지 거기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짓눌러서 때리고 몽겨댈 때 얼마나 아파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어려움을 이겨고자 힘쓸 때 아픔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알맹이로 있을 때는 아픔을 모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는 그 사울이라는 알맹이가 부서졌습니다. 주 안에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얼마나 아픔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고후 11:23-30에 보면 부서지는 아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몸이 상하고 가슴이 터질듯한 아픔을 겪었습니까? 그럴수록 자기는 없어지고 주님을 내세우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참 신앙에는 연단이 있습니다.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빛으실 수 있는 고운 사람이 되세요!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입니다. 누룩은 욕심이며 죄악된 생각을 가리키므로 고전 5:8에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 반죽을 해서 불에 구워야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것입니다 (레 2:5, 24:5, 28:9). 기름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며 불은 뜨거운 시련을 말합니다 (고후 1:21-22, 1 요 2:27, 벰전 4:12).

결국 진설병은 욕심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시련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양쪽으로 잘 구워야 됩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주 안에서 익어져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찾으시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엡 4:22-24, 골 3:5-10)!

진설병은 감절의 양식입니다. 매 덩이당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이로 만들라고 레 24:5에는 나와있는데 하루 일인분 양이 에바 십분 일이며, 이것이 한 오멜입니다 (출 16:36). 출 16:18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한 오멜은 모자람이 없는 만족을 말하며, 따라서 에바 십분 이는 이것의 두배이므로 감절의 감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상 위에 진설되어 있어야 됩니다 (레 24:6, 왕상 7:48). 정금은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의미합니다 (욘 23:10). 말씀만이 있기에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인간의 불순한 말과 사상이 전혀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신앙이기에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길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 21:21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왕 같은 믿음 위에 감절의 감사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레 24:8).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출 20:8-11). 옛세 동안 힘써 일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만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일이 된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새로와지는 것입니다.

6일동안 진설되었던 그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벰전 2:9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진설병을 먹었다고 막 2:23-28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설병입니다 (요 6:48-50)! 사 53장을 볼 때 그 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짓눌리시고, 매 맞으시고 찢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겸손하심으로 고운 가루가 되셔서 십자가의 불시련을 이기신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입니다. 말씀의 떡입니다. 그 분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어 먹을 때 우리는 새로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설병입니다. 우리를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